
2016 SIS

STRUCTURES OF SILK FABRICS

본 자료는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지원하는 『2014 실크제품화컨설팅지원사업』의 일환으로 한국실크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.

(출처 : ITALFASHION)

■ NEAT(단정, 깔끔)

- 남자 수트의 전형적(대표적) 디자인
- 핀스트라이프(가는 세로줄), 헤링본, 클린체크, 러프(고르지 않은, 거친), 이리데상트, 피케, 포플린

■ REFINED(품위, 세련, 고상)

- 톤-톤 더블페이스 자카드, 스트라이프(그라운드)+필쿠페 디자인,

■ IN MOVEMENT(움직임)

- 모래가 덮인 듯한 표면효과, 시어셔커, 세련된 격자무늬, 보일과 머슬린
- structures를 강조하기 위해 많은(다양한) 실과 그것의 titles을 활용해야 한다. 피케, 오토만, 벌집구조, 파나마(머슬린으로 인한 투명함), 크레이프, 보일과 대비효과를 이루는 번아웃 디자인이 주는 즐거움

■ FABRICS(직물)

- 클래식과 간결함 : plain, 비교적 밝은(옥스퍼드, 포플린, 샴브레이 등)
- 코마사를 사용한 남성패브릭
- 개버딘, 서지직물

■ REFINED RUSTICS(세련된 러스틱함)

- 표면의 웅이(마디)와 슬럽직물
- 오픈 스트럭처(구조)
- 작은 양각효과(표면이 오돌토돌, 짚으로된 좌석-방석 같은효과)
- 부레뜨와 산통직물
- 피케와 벌집문양(효과)
- discreet art(신중한 예술?) & 공예적인 관점(자수느낌 등)

■ PAPER ASPECTS(종이와 같은 느낌)

- 예술과 전통공예를 상기시킬수 있도록 직물을 종이느낌으로 표현함.
- 종이원단, 라이스페이퍼, 크레페, 병 포장지, 파피루스, 피지종이, 사포 등
- 이는 몇가지 가공을 통해 만들 수 있음(캘린더 가공, 워터프루프, 프린팅이나 float), 거의 직물이 아닌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관건임
- 자연적 특징으로 표현하려는 에콜로지컬한 이슈
 - 짚으로 만든 좌석과 같은 느낌의 원단, 나무껍질, 뉴트럴톤(까마이유 배색)
- 구조의 중요한 점은 플레인(plain)하게 보이게 하는 것임. 벌집, 피케, 자수, 투명한 효과

■ TRANSPARENCES(투명함)

- 주목해야할 시즌 포인트!
- 컨버스, 머슬린, 오간자
- 트리코트 ajure, 투명함을 표현할수 있는 어떠한 효과

■ FLOWING AND DROOPING(흐르는 듯, 늘어진 듯)

- 모든 중량의 크레이프

■ EFFECTS ON THE SURFACE(표면효과)

- 구조적인 텍스타일
- 코듀로이, 오토만
- 러프한 느낌, 직물

■ DISCRETE FANTASIES(추성적, 판타지)

- 이리데상트, 시네(chine), 자스프(jaspe)
- 진주 광택의(nacreous), 무지개
- 작고 팬시풀한 옹이, 슬럽
- 색감이나 컬러가 두드러진 실
- 트위스트 실, 커트된 실
- 리본같은 효과

- 가공/처리(treatment)는 직물의 최종 관점에서 필수적인 요소임
- 이미지는 내추럴한 편이나 혼방이 우세임
- 코튼과 린넨은 항상 보여지고, cool wool과 silk도 마찬가지로
- 라미(ramie), 합성섬유 여전히
- 비스코스 트렌드가 아주 강함!
- 마이크로 fiber 사용은 더욱 증가

■ TREATMENTS(가공/처리)

- 샤이닝 효과 : 친즈가공, 옷칠과 같은, 캘린더가공
- 빈티지 효과 : 약간 헤진듯한, 워시아웃
- 테크니컬 효과 : 코팅, 오일, 러버(rubbed)

■ DESIGNS(디자인)

- 디자인은 제너럴 트렌드를 따름(2016 S/S 컨셉파일 참조)
- 스트라이프 : 셔츠같은, 비뚤어진
- 작은 checques, 마드라스, 흘치기염(ikats)
- 작은 기하학무늬, 미니체크, 작은 하운즈투스(컬러풀한 lances)

- 아프리카 예술과 아르데코에서 영향을 받음
- 60년대에서 영감을 받았으나 새로이 해석함
- 멤피스의 영향을 받아 우아하고 세련되게 모사

- 디자인 대부분은 피카소, Calder, Miro 등 현대 아티스트(거장)의 작품에서 추출